

남·북단일팀, 여자농구 부흥·AG 금사냥 기폭제

주력들 부상·박지수 WNBA 도전 공백
北 슈터 로숙영·리정옥 즉시전력 가능
존스컵 등 조직력 다질 시간적 여유도
AG 금메달땀 여자농구 흥행의 새 전기

여자농구대표팀이 '하나 된 코리아'로 아시아무대를 정조준한다. 여자농구대표팀의 이문규 감독은 지난 6일 성남공화도 착 직후 북한 선수 2-3명을 포함해 단일팀을 구성할 뜻을 드러냈다. 단일팀을 통해 여자농구는 리그 활성화와 아시안게임 성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린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여자농구 대표팀은 최강 전력을 꾸리지 못했다. 4년 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여자대표팀이지만 김단비(신한은행), 강아정(KB스타즈), 김정은(우리은행) 등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일찌감치 이탈하며 대표팀 구성에 차질이 생겼다.

또한 여자농구의 보물 박지수(KB스타즈)는 지난 시즌 후 WNBA에 도전해 소속팀 라스베이거스 에이시스에서 출전 시간을 늘리며 여자농구 경험을 쌓고 있다. 통상 WNBA 시즌 종료일정을 감안할 때 박지수의 아시안게임 출전은 사실상 어렵다. 아시안게임 이후 여자농구월드컵 출전까지 고려해야하는 만큼 박지수가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건 무리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선수들의 합류는 전

력상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한 센터로속영은 키는 181cm로 장신은 아니지만 32득점을 기록하며 득점력을 보여줬고, 슈터인 리정옥은 두 번의 경기에서 8개의 3점슛으로 고강도 슛감을 보여주며 대표팀 전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현장에서 북한 대표팀의 경기력을 지켜 본 이문규 감독은 특정 북한 선수들(로숙영·리정옥)을 언급하며 북한 선수들의 경기력을 칭찬했다.

단일팀에게는 조직력을 끌어올릴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아시안게임 전에 엔트리가 빨리 정해진다면 대만에서 열리는 월리엄 존스컵을 통해 조직력을 끌어올리며 한 팀으로 선수단을 아우를 수 있다.

단일팀은 대회 이후에도 여자농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남자농구에 비해 비교적 주목받지 못한 여자농구의 인기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아시안게임 후 두 달이 안 돼 시즌이 개막하는 만큼, 단일팀이 대회 과정에서 감동의 드라마를 쓴다면 이어질 여자프로농구 흥열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타며 이뤄진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단일팀이 단순히 보여주기식 팀 구성이 아닌 성적과 여자농구 흥행의 기폭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국 여자농구에 선물해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허보람 객원기자 hughandong@naver.com



5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통일농구대회에서 맞붙은 남북여자농구대표팀. 파란색 유니폼이 남측이다. 뉴시스

유민재·구성모 “라크로스의 발전을 위하여”

〈그물 달린 스틱으로 공을 넣는 경기〉

청춘, 청춘을 만나다

대학입학후 정식 국가대표 합류 선수들 직업 다양...열정도 대단

라크로스는 아직 국내에서 낯선 종목이다. 그런 만큼 선수들이 앞장서서 국내 라크로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가운데 라크로스 국가대표 유망재와 구성모가 있다. 6월 29일,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소속사 사무실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라크로스는 인디언 미국 원주민들의 전쟁
대용 이벤트로 시작되었으며 전쟁 중 말과 말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프
랑스에서 교황이 사용하는 막대기처럼 생겼
다고 해서 '라크로스(lacrosse)'라고 불리게
되었다. 프랑스인들을 선두로 미국에서도 스
포츠화가 되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구성모와 유민재는 중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 라크로스를 접할 수 있었다. “미국 사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는 예체능을 배우는 것을 중요시해요. 한국인 유학생들 중 라크로스 팀에 가장 먼저 합류했는데 다행히 적성에 잘 맞았어요. 중학교 때 시작



라크로스 국가대표 유민재(왼쪽)와 구성모.
사진제공 | 스타크코퍼레이션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여기활동 수업으로 하다가 대학 입학 후에 정식으로 국가대표에 합류하여 책임감을 갖고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리크로스 선수들은 운동선수로만 활동하

는 게 아니라 각자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구성모와 유민재는 장점과 단점을 한가지씩 꼽았다.

“장점은 각자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 이라크로스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로적인 부분이나 다른 측면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다른 직업을 갖고 운동과 병행하다보니 다른 스포츠처럼 매일 훈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두 선수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좋은 성적과 라크로스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다. 2018~19시즌에는 라크로스 대표팀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성취하길 바란다.

안소윤 대학생 명예기자 95thdbs@naver.com

청춘스포츠

11

2018년 7월 10일 화요일

人至六동아

러 월드컵서 통용된 비트코인
결제수단의 가치를 증명하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연스레 자리 잡고 있는 중이다.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회 시작 전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는 러시아의 디지털 결제문제를 비트코인이 해결하면서 월드컵을 통해 비트코인이 화폐의 영역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2014년 미국의 경제 제재 이후 러시아는 일부 글로벌 신용카드 이용에 차질이 생겼고 자국 결제 시스템조차도 사용하기 어려워지면서 디지털 결제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해결책으로 등장했다. 일찌감치 칼라닌그라드를 비롯한 개조시들로는 호텔, 항공 등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했다.

실제로 글로벌 여행예약플랫폼인 '아고다'에서는 러시아 월드컵 관련 상품들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했다.

포브스는 월덱톱으로 인해 러시아에 유입되는 많은 관광객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되면서 시세가 높아지게 된다고 예측했다. 과연 정말로 높아졌을까. 개막전 기준 (한국 시간 6월 14일)으로 1비트코인 당 6252달러로 시작해 다음날 6659달러까지 예상대로 상승했다. 하지만 23일 6013달러로 하락했다.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주목받았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캐나다 퀸즈대학 토르스텐 케플 교수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결제수단으로서의 잠재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브라질 월드컵 때만해도 배팅의 수단이었던 화폐가 이제는 결제수단의 한 종류로 고려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4차 혁명은 한 발짝 더 다가왔다.

서보원 대학생 명예기자 boohe97@naver.com

▶ 세탁할 필요없습니다.
✓ 항균, 탈취
✓ 전자파 방지

ELEX 동사(銅)양말 이제 양말 빨지마세요!!

7일 무료 체험

직접 신어보시고 냄새가 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불만족시 신어보신 한 켤레는 폐고 나머지는 반환하시면 됩니다. (왕복 택배비 본인 부담)



HIT기능양말 시중가 20,000원 고급 양말 파격 할인

5켤레 : 100,000원 ➡ 49,000원

10켤레 : 200,000원 ➡ 79,000원



*** 엘렉스 동사 양말 세탁시 주의사항 ***

- 엘렉스 양말은 세균이 번식하지 않으므로 세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발의 땀이나 물기에 젖은 경우 그대로 건조만 하여 다시 신으시면 됩니다.
- 편소의 습관이나 오물이 묻어 꼭 세탁이 하고 싶으시면 그냥 물에다 한번 헹구기만 해서 살짝 짜서 그대로 말려 다시 신으시면 됩니다.
- 절대로 표백제를 사용하지안 합니다.

발 냄새 나지 않고, 미생물을 죽이는 미량동 작용을 하는 동사 양말!



미생물을 죽이는 만능 금속, 구리!

발 냄새 때문에 심한자리 동전을 구두에 넣어두는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심한 동전이 발냄새를 없애는데 아니라 주성분인 구리가 세균을 죽이는 것입니다. 무생물인 구리가 세균을 죽인다니, 조금은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리는 공공장소의 금속 손잡이, 난간, 에어컨 시스템 등에 살균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본 연구결과 - 세균 번식 TEST



다른 금속 동(구리) <24시간 후 동 주변엔 세균이 번식을 못함>

미량동 작용이란?

어디에서든 잘 살 것만 같은 세균이 구리를 만나면 죽는 것은 바로 미량동 작용(oligodynamic action) 때문입니다. 미량 살균 작용이라고도 불리는 미량동 작용은 콜로이드가 세포 원형질 속의 설파하이드릴기(-SH)와 황과 강하게 결합하여 산화환원계를 저해하는 작용입니다. 세균이나 균류가 구리의 표면에서 지나갈 때, 구리 원자가 미생물의 대사작용을 교란시키는 것이지요. 그 결과, 몇 시간 안에 미생물이 죽게 됩니다.

프라즈마 볼 실험



일반 양말 ELEX 양말

일반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양말은 불에 닿아도 거의 변화가 없지만, ELEX 섬유가 포함된 자사의 양말이 달은 볼 부분은 빨갛게 전기가 한곳에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장표



특허증



7일 무료체험 신청

1661-0110